

제5회

통일을
소원으로가 아닌
서원으로 감당하라
(엡 1:10)

2025.
6. 1. 주일 - 6. 22. 주일 (매주 오후 2시),
27일 금요기도회
안성제일감리교회 대예배실

목차

CONTENTS



01 초청의 글

02 평화통일학교일정

03 평화통일 성찬예식

05 1강
북한이탈주민 이해 - 서경화 목사

09 2강
한반도 평화와 소명 - 엄에스더 목사

31 3강
문명사적인 대전환시대, 한반도 통일외교 - 최재덕 교수

45 4강
금요기도회 설교 및 특강 :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 김영대 목사

59 메모

“제5회 평화통일학교를 열면서 ”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그 소원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단 80년을 맞이하는 올 해에, 우리의 통일 당위성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통일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외쳤던 시절은 지나갔고, 어느새 통일이 정말 필요한지를 묻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민족 통합의 이유, 그리고 인류보편적 가치의 이유 등 다양하게 물으며, 무엇이 ‘효과적인가’ 를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측면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독교인인 우리는 통일을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성향이나,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소원이 아니라, 서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서원하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일 때, 하나님은 막힌 답을 우리를 통해, 허무실 것이고, 형제의 화해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통일을 확신하고, 한 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때, 그 날에 함께 만날 복 됨을 눈으로 목도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배우는 여러분이 바로 복음평화통일의 사도입니다.

2025. 6월 제5회 평화통일학교를 열면서 **담임목사 이선진**

제5회
평화통일학교
일정

2025.6.1(주일) 오후 2시

평화통일 성찬예식

1강

2025.6.8(주일) 오후 2시

북한이탈주민 이해
서경화 목사(북한기독교총연합 회장)

2강

2025.6.15(주일) 오후 2시

한반도 평화와 소명
엄에스더 목사(유니시드 대표)

3강

2025.6.22(주일) 오후 2시

문명사적인 대전환시대, 한반도 통일외교
최재덕 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

4강

2025.6.27(금) 오후 8시

금요기도회 :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김영대 목사(꿈마을엘림교회 담임목사)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성찬(25. 6. 1. 주일. 오후2시)

평화통일 성찬예식

□성찬식

(집례자) 분단된 이 땅의 세월이 8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반목하고 갈등하고, 적대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며, 복음 안에서 평화로 하나 되는 그 날을 소망 합시다. / 그런 마음으로 시작 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이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시작기도

(집례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자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회 중)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집례자)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회 중)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집례자) 저희가 하나님의 재림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회 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집례자)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 중)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사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집례자)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회 중) 영광과 찬양을 영원히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삼성창(찬송가 2장)

□회개기도

(다함께)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80년 동안 분단되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미리 보내주신 3만 5천의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낯선 곳에서 늘 두려움이 있을 이들에게 사회적, 신앙적 지지체가 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송된 성도들의 생명과,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용서의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서 1:13-14)

□평화의 인사

(담임목사)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중)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목사) 이제 십자가 사랑과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변 분들을 찾아가 손을 뻗어 인사하겠습니다.)

(회중)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찬양(412장 후렴 2번)

□복음평화통일을 위한 불 밝힘

(집례자) 빛은 산성함과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상징입니다.

(회 중)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며 구원하셨듯이, 흑암에 갇힌 한반도를 빛으로 온전히 비춰 주옵소서.

(집례자) 빛은 또한 우리 모두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세상 모든 곳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회 중)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불꽃같이 나오르며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집례자) 첫 번째 초를 밝힙니다. 해방의 빛을 누리기도 전에, 분단의 어둠으로 꺼진 빛을 다시 켜줍니다.

(회 중) 빛이신 주님께서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통일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집례자) 두 번째 초를 밝힙니다. 6.25전쟁으로 인해 서로 죽이고, 죽이는 민족의 고난과 아픔의 어둠을 이 빛으로 새매어주시고, 한 형제자매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열싸 안는 날이 소망합니다

(회 중) 원수 된 우리를 용서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집례자) 세 번째 초를 밝힙니다. 다가올 한반도는 복음을 하나 되어, 온 열방을 섬길 새로운 주님의 빛이 될 것입니다

(회 중) 새 영을 통해, 혈혼의 이슬과 같이 연합의 기쁨, 하나 됨의 새로움이 이 한반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찬 제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르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입재의 기원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 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분급

한반도 지도 위에, / 압정으로 / 복음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 000 이름 적은 결단종이 붙이기 / 한반도 지도에 먼저 붙이고, 양쪽으로 갈라져 분급 / 목사 압정(기도의 사명을 받으세요.), 판 잡기(목사-우리의 기도사명이 이곳에 있습니다. 성도-아멘 하고 붙임) / 장로 분급 (평화의 주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평화의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

□성찬 후 감사기도

(다함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비를 복녔에도 나누게 하시고, 함께 할 날을 소망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도자로 결단했으니, 복음평화통일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송(한라에서 백두까지)

□파송의 말씀

(집례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하늘과 땅의 하나 됨이, 한반도에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배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섬김들을 주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합니다.

(회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갈라진 남과 북에, 다시 새롭게 세워질 통일 한반도에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가득할 날 올 때까지,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섬김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축도

1강

북한이탈주민 이해 서경화 목사



강의	탈북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으면 이해 불가이다!
강사	- 북한기독교총연합 회장 - 감리교 목사

북한이탈주민 이해

서경화 목사

탈북민들은 이 땅에 와서 문화가 좀 다르고 익숙하지 못한 외래어로 적응이 어렵다. 북한에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굶주림으로 인하여 총없는 양식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의 세계를 맛보았고 중국과 제 삼국에서 팔리어 언어도 통하지 않는 광야에서 원치 않는 결혼과 원치 않는 자녀까지 낳아 그야말로 고난의 극치로, 또한 언제 잡혀가야 하는 걱정 근심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마음에 상처가 가슴을 찢어내는 고통과 치욕을 견디며 살아내야 하며, 살다가 그나마 대한민국에 와서 또 하나 통하는 언어 같은데 통하지 않는 미숙한 언어? 또 익숙치 못한 문화가 또 하나의 고통을 덮어씌우는 살벌한 과정을 살아간다.

잘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세계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려 자살도 하는 암울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묻혀 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까? 또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도 적응이 안 되는 상황...

많은 미숙한 상황들을 어떻게 견디며 뚫고 나가야 할까 하는 의문?

질문들의 숙제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아는 우리가 오늘 의문과 질문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강의 준비를 하였다.

2강



한반도 평화와 소명

엄에스터 목사

강의	북에서 태어난 한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한반도 복음통일과 소명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강사	- 현) 유니시드 대표 - 현) 노원휴먼라이브러리 휴먼북 - 전)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자문위원 - 전) 한국ywca 상임위원 - 전) 여명 동문회 회장 - 전) 주식회사 엄마푸드 대표 - 한국외국어대 졸업 - 여명학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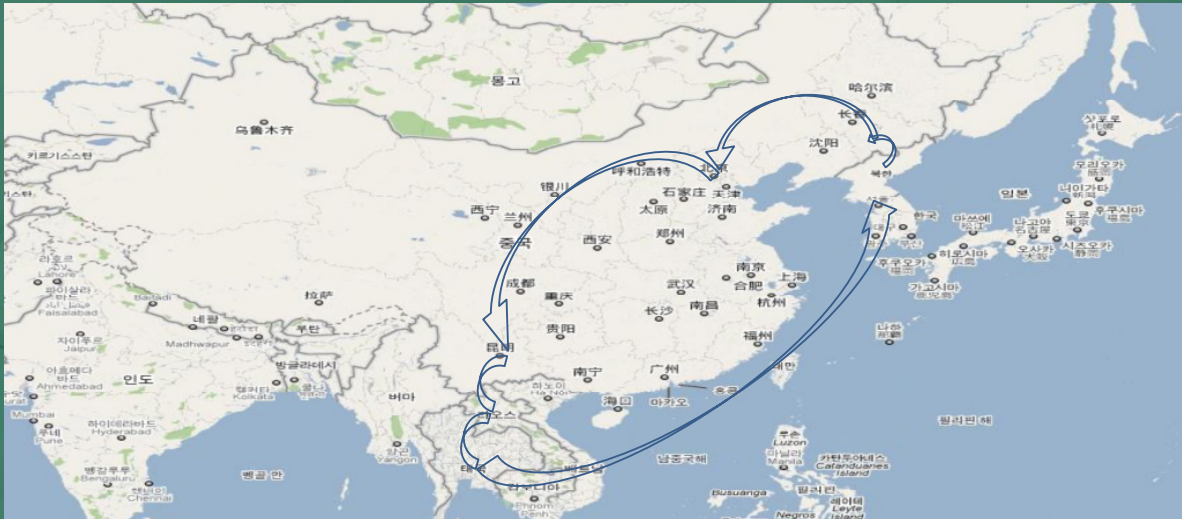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와 소명

안녕하세요? 엄 에스더입니다.

함경남도 함흥시 출생
2004년 1차 탈북, 2006년 재 탈북
2008년 10월 한국 입국



탈북 과정



탈북 이유

생계형 탈북

하나님 만남 이야기

- 도망 중 만난 그리스도인
- 북송 후 구치소에서 만난 하나님
- 여동생 구출속에서 만난 예수님

절망

어머니와 여동생 북송

방황

팔다리가 없는 동냥인

좌우명



할 수 있을 때 하자

하나님 나라

- 통일비전 캠프 요한복음 6:33
- DTS 코나 열방대학 갈라디아서 2:20
- 열방부흥축제 열방의 하나님나라

십자가 사랑

남동생의 소식

북한이탈주민

북한사람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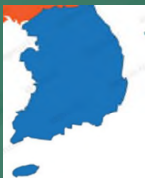
정체성

나한테는 왜 탈북민이라는 이름이
붙어 다니는 걸까?

대한민국 국민

북향민/남향민

대한민국 국민



정착

북향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북향민의 정착이란?

남한 사람화 되기 보다,
하나된 한반도를 준비하는 사람

북향민의 역량



전세대 공감

실향민

부모세
대

청년세
대

하나된 한반도 준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현 상황과 문제점

1. 탈북민이 겪는 어려움

- ✓외상 후 스트레스
- ✓외로움
- ✓낮선 개인주의
- ✓교육의 총량

2. 주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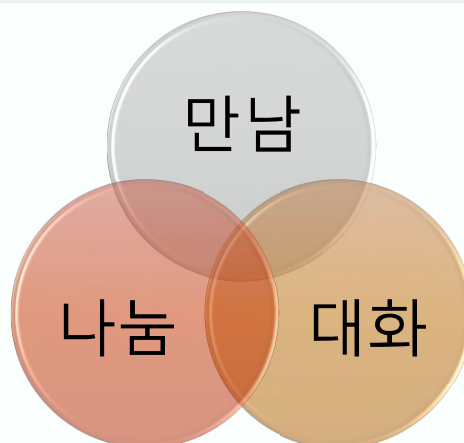
- ✓호칭
- ✓선입견과 편견
- ✓편향된 미디어
- ✓탈북민 이용
- ✓경쟁 사회

3. 문제점

- ✓정체성 확립 어려움
- ✓체제와 사람 분리
- ✓북한 주민을 배제한 통일론

하나된 한반도 준비

해결 할 수 있는 작은 일



유니시드, 그 시작!

<2008년 고향 함흥을 떠나 서울 살이 시작>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듯한 생활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먹고 사는 삶이 전부인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하나 될 한반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첫 실천에 옮긴 것이 '이웃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공공의 선(善)을 위해 남북한 출신 사람들이 협력하는 경험과
서로의 삶을 나누는 대화 가운데 '같음'과 '다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유니시드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3명의 탈북민 친구들과 서울역 노숙인에게 직접 만든 도시락 나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월 1회씩, 10여 명의 남북한 출신 주민과 함께<오손도손 도시락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함께한 봉사자가 1천여 명, 나눔 도시락이 2만여 개입니다.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매개로 남북한 출신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의 주요 활동은'나눔과 대화'입니다. '나눔과 대화'는 하나된 한반도에'사람통일'을 이루는
가장 평화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유니시드 소개

나눔과 대화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갑니다.

- 설립목적

우리 단체는 남북의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나눔과 문화 공유를 통해 소통하며 하나 된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비영리단체 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출신 주민 간 공
감과 수용성 제고, 지역사회 통일 감수성 확산,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 주요 연혁

2014.07 <통일봉사단> 활동 시작
2014.12 <노숙인 도시락 나눔> 시작
2015.11 통일부 <착한봉사단> 선정
2016.01 남북 출신 주민 교류 프로그램 기획
<너랑나랑공방>,<유니데이> 진행
2018.05 씨앗장학금 장학생 선발(2021년 현재까지 매년)진행
2019.01 남북 출신 주민 대화 프로그램 기획
<너랑나랑 토크콘서트>, <차이 좁히는 클래스>진행
2020.10 남북 출신 주민 대화를 위한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사람책도서관<차이 좁히는 클래스>, <사람책 모임>진행
2021.06 통일부 허가 사단법인 유니시드 설립
2023.01 기정기부금 단체 허가
2023.05 <남북주민 생애나눔 유니퀴즈>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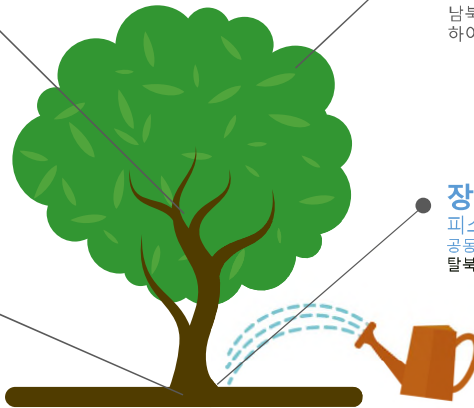


비전과 주요 사업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확산과 통일준비

나눔사업
평화감수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과 연대
남북의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과 평화역량 함양

교육사업
인식변화
통일 북한 탈북민에 대한 배움
더 평화로운 공동체로 가기 위한
배움의 장 확산



문화사업

내적통합
남북의 차이를 이해, 편견과 갈등 해소
남북한 출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
하여 사회통합 역량 강화

장학사업

피스메이커 양성
공동체 협력과 화합을 이끄는 인재
탈북민 인적 역량 강화

21

프로그램 소개

오손도손 도시락 나눔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평화 감수성을 함양
• 매월 네 번째 토요일
• 서울역 노숙인 및 쪽방촌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나눔

차이 좁히는 클래스(휴먼북, 유니퀴즈!)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남북한
사회문화 정체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질성을 포용하여 통합역량 향상
• 매월 마지막 토요일
• 관심 있는 일반 시민



씨앗 장학금

공동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 연 1회 공모(장학생 5명~10명 선별)

인권교육/캠페인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등 공존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남북 분단으로 인한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통합역량을 갖춘 시민 양성
• 연 4회 (워크숍, 스터디, 리트릿 등)
• 관심 있는 일반 시민

22

프로그램 소개

남북 생애나눔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남북한
사회문화 정체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질성을 포용하여 통합역량 향상
• 매월 2회 토요일
• 관심 있는 일반 시민



1:1 원어민 영어 교육

공동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 연 2회 모집(장학생 5명 선발)

23



오손도손 도시락 나눔



보육원 선물 나눔



중국체류 탈북민 생필품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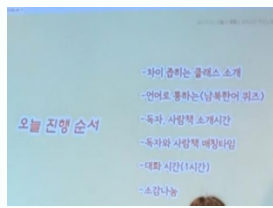
너랑 나랑 공방



너랑나랑 토크콘서트



씨앗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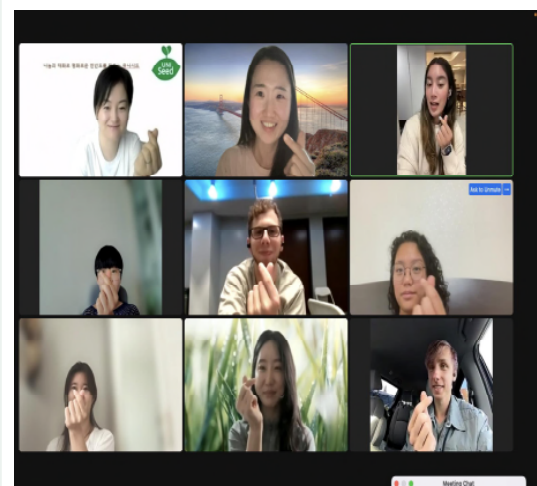
차이 좁히는 클래스



유니데이



북한여성의 편지



1:1 매칭 영어교육



남북생애나눔 대화



유니퀴즈!

만남 (나눔 + 대화) 공유 효과

다들
작은동일
만남있는 하루였습다.
작은개성이금 고백과 오빠들
알고 더명화하있습다!



수혜자-시혜자
남과북 - 우리/친구
함께 살아가는 연습
동질성
공동체성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끝까지 할수 있어
알게 되었습니다.
작말한 사람에 따뜻한 배려를 못이행
위한 모임이 되길 기원합니다.



유니시드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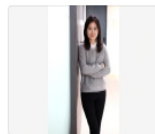


언론소개

스카이데일리 | 2021.01.15.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살고 싶었어요"

김찬주기자(g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15 00:05:10 ▲ 엠에스더 유니시드 대표 [사진=황정아 기자] ⓒ스카이데일리 "통일이란 의미가 모두 다를 수



▶The Volunteer Group UniSeed 나눔을 통해 사랑을 배워요. 나눔을 통해 사랑을 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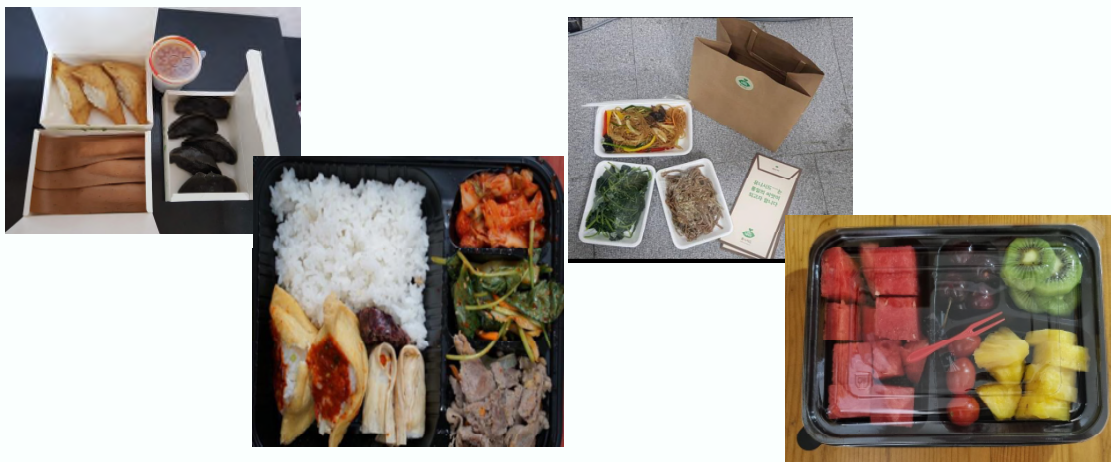
The cumulativ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as exceeded 30,000, and they have started new lives in the country with humanitarian support. Among them are students who give back the warmth they received to those in need - UniSeed. Once beneficiaries, these North Korean defectors have turned into reciprocators of the love they've received in the South and hope to build a bridge for reunification through the seeds of "sharing" and "love" they planted. Let's meet UniS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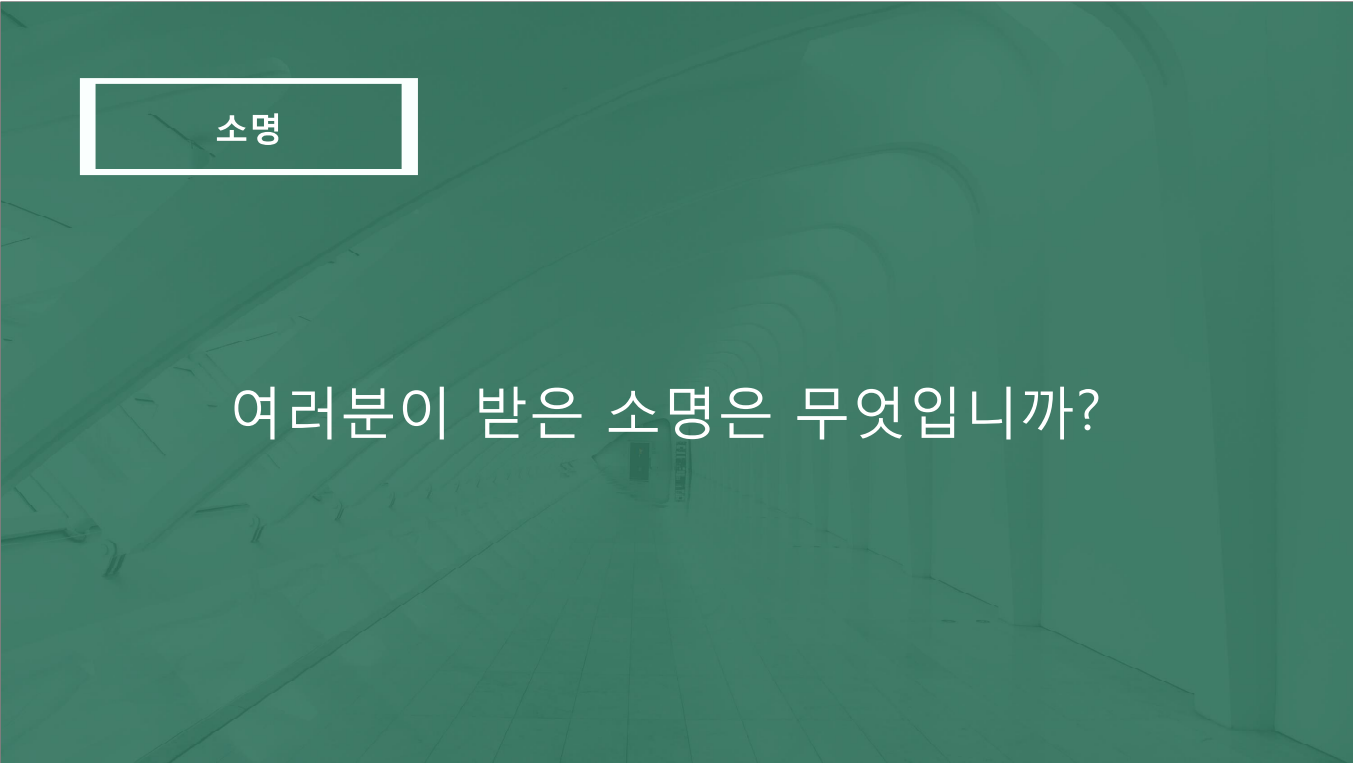


유니시드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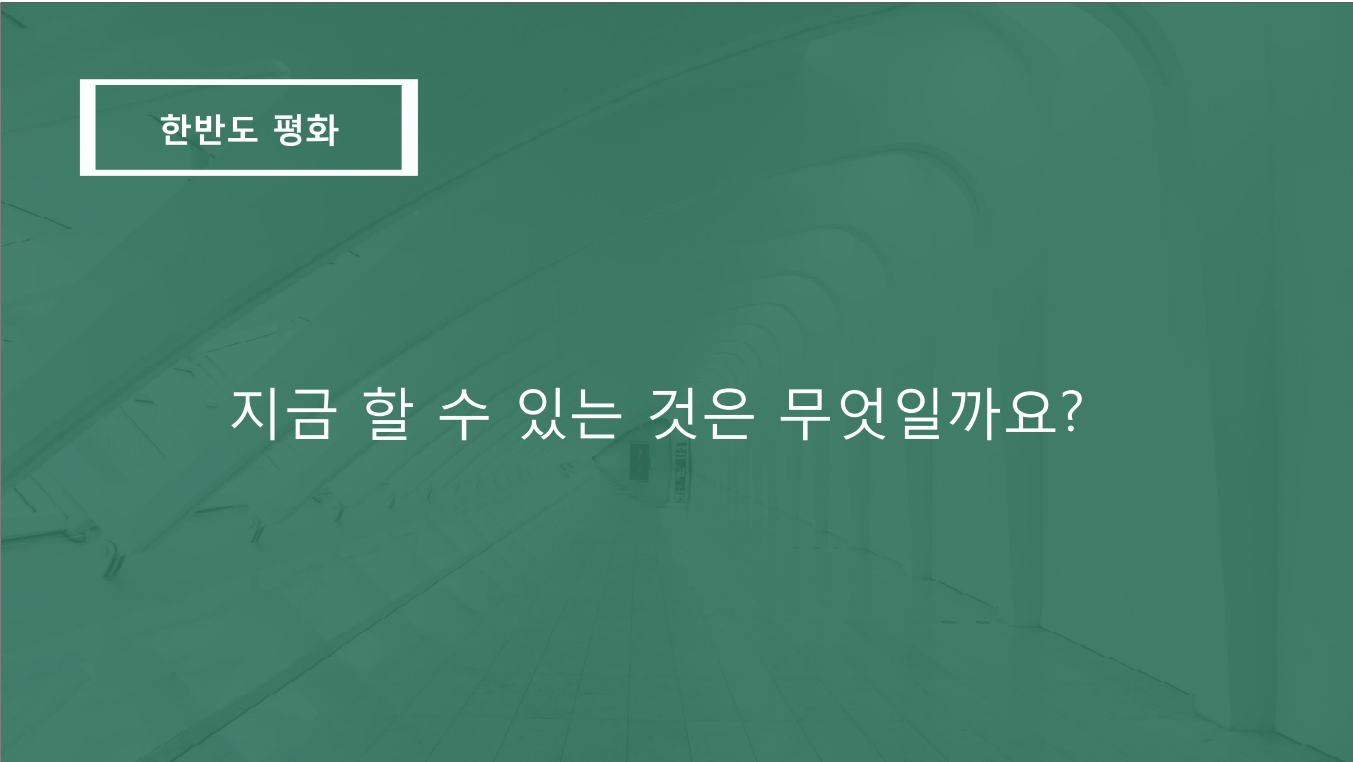
나눔을 통해 사랑을 배워요.





소명

여러분이 받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평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Q & A

소명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3강



문명사적인 대전환시대, 한반도 통일외교

-새로운 도전과 기회

최재덕 교수

강의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의 방향은 명확하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다른 지정학적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지정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우호적인 전략 환경에서도 중국·러시아의 핵심 이익은 침해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강사	- 중국북경대학 박사 - 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학 국제관계 박사과정 수료 -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2024~) - 원광대 한중정치외교연구원 소장(2019~2021) -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2019~2021) -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2024~)

문명사적인 대전환시대, 한반도 통일외교 -새로운 도전과 기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최재덕

1.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

트럼프 2.0시대 미중경쟁 심화는 예견돼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한국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미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보다 안미경미(安美經美)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외교는 양자택일보다 좌표의 점진적 이동에 가깝다. 한국이 미국 쪽으로 좌표를 이동함에 따라 중국에서 멀어지면 중국은 한국을 경계하고 양국의 협력도 줄어든다. 중국은 자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의 외교적 좌표 이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중간국이 급격히 한 국가에 편향되면 멀어진 국가는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나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동맹 강화가 중·러에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이 그 예이다.

한국의 안보는 지정학적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은 한미동맹, 한미 핵협의그룹(NCG), 한미일 연합훈련 등 안보의 일부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중·러를 머리에 이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이사할 수 없고 이들은 우리의 영원한 이웃 국가다. 이들과의 단절은 동북아 평화 협력의 지렛대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2.0시대에 한국은 국익을 위한 대외정책의 본질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미국이나 중국의 시각이 아닌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안보적 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미중경쟁에 대처하는 한국의 입장은 어느 편이 맞고 틀리냐 혹은 이기는 편에 서면 함께 이긴다는 단순한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은 미중 갈등의 부정적인 압력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미중 양국과 유연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여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고 다가올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을 대비해야만 한다.

트럼프 2.0시대에는 경제안보가 국가경쟁력이다.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전통적인 군사 안보가 국가 안보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다른 모든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치함에 따라 국가 안보의 개념이 군사 안보 중심에서 에너지, 식량, 자원, 첨단기술, 공급망 등 모든 경제적 영역을 포함한 경제 안보로 확장되었다.

미중관계가 갈등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로 연결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은 이원화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촉매제 역할을 했다. 지난 30년간 세계화 기조 속에 이념적, 지정학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개방성과 상호의존성, 초연결성은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2.0시대 한국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공급망 위기관리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 마련 및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4차 산업 혁명 시기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국가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자력발전, 조선, 철강 등 각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경쟁력 유지가 핵심이다.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은 93건, 추정 손실액은 25조 원에 달한다. 미중 경쟁의 핵심이 첨단기술 경쟁인 만큼 반도체 기술과 장비에 대한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심해질수록 한국 기업을 통한 기술 유출 시도가 증가할 수 있다. 산업기술 보호와 공급망 위기관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의 수출은 특정 지역과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새로운 잠재 시장 개척을 위해 인도와 아세안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 수출을 확대하고 품목도 영화, 음악, 식품, 화장품 등으로 다양화하여 글로벌 팬덤이 형성된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수출 지역과 품목 다변화에 젊은 소비층이 증가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 높은 인도와 아세안은 한국의 경제 영토를 넓힐 훌륭한 대안이다. 자국우선주의와 경제 블록화로 세계의 경제 영토에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이 쌓이고 있다. 세계 경제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에 기반한 공급망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트럼프 2.0시대 우리는 기후 위기와 전염병의 대유행,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문명사적 도전과 미중경쟁,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과 자원무기화, 경제블록화 등 국제질서의 대혼란기에 직면해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시기에 수면 아래 있던 지정학적 위험도 갈등 축적기를 거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표출됐다. 마치 탈냉전과 세계화에서 나와 새로운 시대의 도입부에 들어선 듯 혼란스럽다.

지정학적으로 미중일러 사이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한국의 좌표가 미국과 일본 쪽으로 이동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그 틈을 이용하여 북한은 북·러 관계를 강화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실상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면서 강대국들의 부정적인 압력이 한반도에 투사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이 처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의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 다른 지정학적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지정학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우호적인 전략 환경에서도 중국·러시아의 핵심 이익은 침해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안보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악화, 북한의 핵고도화 억제력 부재 등 다른 측면에서 안보적 위험은 계속 커지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북한이라는 실제적인 안보 위협을 헤징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강대국의 지정학적 각축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무리하게 나토 가입을 추진한 것이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극단적 안보 불안 상태에 처하게 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셋째,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 경제적·안보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은 룰 메이커(rule maker)인 미국이 룰(rule)을 변경하는 상황에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국가로서 그 안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능동적으로 한·중, 한·러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전쟁은 장기간 쌓여온 양 진영 간 갈등의 폭발이자 생존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이다. 러-우 전쟁이나 이-팔 전쟁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나 하마스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갈등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전쟁을 예방하고 이미 시작된 전쟁을 종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모든 전쟁은 갈등 축적기를 거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전쟁도 마찬가지이며,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대만 해협과 한반도도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 유연한 사고로 지정학적 갈등과 그 압력을 낮추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 갈등이 첨예한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굳건한 전통 안보 위에 경제안보를 추구해야 하며 트럼프 2.0시대 미중경쟁 상황에서도 한국의 통일외교의 지향점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최근 동북아정세 변화

한러 관계 악화는 북·러 관계 개선, 한국의 안보 위협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비우호적인 전략 환경에서도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러시아의 부정적인 압력이 한반도에 투사되면 북한이 더 힘을 얻어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최근 북·러의 밀착은 현 지정학적 상황을 활용하려는 양국의 전략적 행보이다. 북·러 정상회담의 장소가 보스토크 우주기지라는 것만으로도 큰 상징성이 있었다. 운반 로켓 기술력 부족으로 두 차례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으로서는 우주 기술 이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영 및 첨단기술 경쟁, 공급망 재편이 더해지면서 미중 경쟁의 셈법을 복잡하게 하고 기존 국제질서가 다극화로 이행하는 변화를 초래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북·러의 밀착을 초래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응하여 강도 높은 도발을 하며 핵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 러시아의 무기고를 채웠고 러시아는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군사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듯하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소련과 체결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에 의한 핵 기술 이전에 기인한 것이라면 북·러의 군사 기술 협력은 향후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 단체 관광을 허용했고 모스크바와 평양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

북·러 관계의 긴밀화는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중·러의 반대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가 어려워진 데 이어 러시아가 군사 기술 협력을 하게 된다면 핵 선제 사용을 시사한 북한을 견제하기 더 어려워진다.

최근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어 북한이 더 위험해진다면 북한 지도부가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책임이라고 북한을 공개적으로 두둔했다.

국산 무기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공급되고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러의 대리전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의 무기가 대치된 상황이다.

인접국의 핵무기 보유와 ICBM 고도화는 러시아에도 잠재적 안보 위협이며, 상호 교환적 거래의 관점에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얻을 실익이 현저히 적지만 현 국제 정세에서 북·러는 윈윈(win-win) 관계임이 분명하다.

다행히 북·러의 관계 강화가 북·중·러 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북·중·러 연대의 선봉에 서서 북·러와 같은 배를 타는 것은 자국의 큰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범위 내에서 상호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유례없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역외 공격에 공동 대응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에너지·경제·군사 협력, 탈달러화(De-dollarisation), 브릭스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 대만 통일 지지와 한반도 정세 공동 대응에 이르기까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가 상당히 공고하다. 중·러 긴밀화의 이점은 여전히 그 한계성을 압도하면서 권위주의 국가 결집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국 안보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도 역시 중요하다. 양국의 핵심이익을 상호 침해하지 않으면서 레드라인을 지키는 위기관리로 양자 관계를 유지해야 북한을 견제하고 한반도의 안보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비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북한을 견제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 한반도에 냉전적 구도가 고착화되지 않게 강대국과의 유연한 양자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의 방향은 국제질서의 재편과 신냉전이라는 비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헤쳐 나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한국은 가치외교와 함께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양립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안보 위기에 남북한이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과 북은 휴전 상태이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북·중·러 연대와 일본의 재무장, 대만해협에서 미중 대결이 동북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남북한의 안보적 긴장이나 소규모의 군사적 충돌도 강대국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남북한 관계는 가장 어렵고 절박할 때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남과 북이 안보 구조적 제약에서 비롯되는 한반도 위기에 공동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안보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로 빚어지는 남북한 갈등의 극대화이다. 한국전쟁은 냉전 시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리전이며, 북·중·러 관계 심화와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미중패권경쟁과 신냉전이라는 구조화된 안보적 제약에서 한반도가 희생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전쟁 예방적 컨센서스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어려운 안보적 상황에서도 중·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은 북·중·러 연대를 견제할 방안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통일외교 전략은 안보 최우선의 위기관리와 전쟁 예방이다. 대립과 경쟁의 시기 뒤에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온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한국이 함께 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가치외교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한러 관계를 유지·개선했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지정학적 위험이 큰 지역에서 강대국의 힘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중간국이 급격하게 균형점을 이동하는 경우, 그것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더라도 핵심이익을 침해당한 강대국으로 부터 중간국은 더 큰 안보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강대국의 힘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 지역은 언제든지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 있다.

북한은 다극 체제와 신냉전으로 이행하는 국제 정세의 대혼란기를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핵무력을 완성할 기회로 삼고 있다. 한국과 중·러의 관계 단절은 북·중·러의 연대를 견제할 방안

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위기를 관리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이어가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의 위기는 유라시아대륙을 반으로 접어다 편 것처럼 서쪽과 동쪽 양극단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對)유라시아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아메리카대륙의 패권국으로 다른 대륙에서 지역 패권국이 출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다. 강대국의 힘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중간국의 비극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유라시아 반대편에 미·중의 힘이 충돌하는 위치에 한국이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듯이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벌어질 수 있으며 남북한이 연루되거나 한반도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중러 대 한미일의 냉전적 구도가 강화되고 한반도 안보의 구조적 제약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워싱턴의 미·중 관련 회의에서 세계대전을 논의하고 있다'는 풍문이 떠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쟁은 미·중 모두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초기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대만통일'을 추구하며 해군력을 강화해왔다. 성능은 뒤지더라도 중국의 군함 수는 이미 미국의 군함 수를 넘어섰다. 중국은 자연스러운 대만통일이 어렵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고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완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 패권국이 된 이후 다른 대륙에서 미국에 도전할 만한 지역 패권국의 출현을 저지해 왔다. 미국의 목표는 명확하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오커스(AUKUS)에 일본과 한국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필리핀과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1.0시기부터 대량의 첨단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고 대만군은 자위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미·중·일·러의 균형점 역할을 하는 한국이 안보를 위해 좌표를 지나치게 편향되게 움직이면 대척점에 있는 상대국이 한반도에 부정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안보 위험이 발생한다. 한국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2.0시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호적인 이웃 국가가 되고 자국의 이익과 발전에 필요한 국가가 될 때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3. 통일외교 정책- 한국의 스텐스

한국은 바이든 전 행정부의 민주주의 동맹국 중시와 한미일 군사협력에 편승하며 외교적 좌표가 점차 미국으로 이동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선택지가 좁아진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보다 안미경미(安美經美)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대두된다. 그러나 외교는 양자택일보다 좌표의 점진적 이동에 가깝다. 한국이 미국 쪽으로 좌표를 이동함에 따라 중국에서 멀어지면 중국은 한국을 경계하고 양국의 협력도 줄어든다. 중국은 자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의 외교적 좌표 이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중간국이 급격히

한 국가에 편향되면 멀어진 국가는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나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동맹 강화가 중러에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이 그 예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취하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선회했다. 이후 한국도 변화하는 동북아 상황에 대응하며 방향을 같이 했다. 이는 미중 협력 시기에 중간적 위치에서 이익을 누렸던 한국이 좌표를 점진적으로 미국 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동맹에 무게 중심을 두되 중국, 러시아와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유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에 있다. 한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상충하는 위치에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인접해있으며 세 나라 모두 핵보유국이고, 북한과 휴전중이다. 안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하나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를 통해 안보적 긴장 수위를 낮추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나 한미일 군사협력이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 수위는 조절해야 한다. 북한과 단절한 채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 결과 한중관계는 경색되었고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해 안보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 북미대화를 3차례 시도하면서 한반도의 해빙기라 부를 정도의 안보적 긴장 완화의 시기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두 개의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압박하여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북미대화를 시도한다면 한반도 안보적 긴장은 완화될 것이다. 이 또한, 안보를 위한 것이며 군비 확장, 군사력 증강 못지않게 우호적 안보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지난 30여 년이 이념과 체제에서 오는 갈등을 억제하면서 협력했던 시기라면 이제 갈등을 더 표면화하고 증폭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한국의 대외적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바뀌고 선택지도 축소되었다. 여기서 한국의 입장과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은 흑백이나 선악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구도를 파악하고 대응하면서 점진적인 좌표 이동을 통해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미중 경쟁에서 결국 미국이 이길테니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주장은 그 과정에서 한국이 직면할 경제적, 안보적, 지정학적 위협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늘 지정학적 상황을 인식하는 토대 위에서 안보 최우선의 외교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핵을 보유한 세 개의 국가를 이웃으로 두고 있는 한국이 한중, 한러관계를 비우호적으로 만드는 것은 북한을 견제할 레버리지를 상실하는 것이다. 러우 전쟁으로 한러관계가 경색된 틈을 이용해 북러관계가 밀착됐고 UN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UN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함으로써 이를 무력화시켰다. 20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 협력 동반자 협정'을 맺으며 친밀한 북러 관계를 구축했다. 이 협정에는 1961년 체결된 '조·소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우호조약)'에 포함되었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었다. 한국으로선 잠재적 안보 위협이 커진 결과를 맞았다.

한러관계 악화는 북러관계 개선, 한국의 안보 위협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은 비우호적인 전략 환경에서도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강대국의 부정적인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러시아의 부정적인 압력이 한반도에 투사되면 북한이 더 힘을 얻어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북러의 밀착은 현 지정학적 상황을 활용하려는 양국의 전략적 행보이다. 2023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로 성사된 북러정상회담 장소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니치 우주 기지였다. 운반 로켓 기술력 부족으로 두 차례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으로서는 우주 기술 이전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량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유를 공급받았고 군사기술 협력도 확대할 수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소련과 체결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에 의한 기술 이전에 기인한 것이라면 북러 군사기술 협력은 향후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2022년 9월 핵무기 선제 사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핵 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한 데 이어 2024년 1월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공식 규정하여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악화일로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국산 무기와 북한산 무기가 대치된 상황이 발생했고, 북한은 러시아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부분이다.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북한이 러시아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할 경우 북한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외화벌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 시기에 한러관계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전쟁 기간 동안 한국이 민주주의 동맹국과 대러 제재에 참여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여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고 양국의 비자 면제 협정도 유지되었다. 무엇보다 양국 모두 경제 및 외교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 특히,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유럽과의 관계가 단절된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할 것이고 한국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한러관계 복원을 통해 북러 관계 밀착을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이 한국의 안보적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러시아에 분명히 해야 한다. 향후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때 북한과 가까워진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미러관계가 개선되면 미국의 견제나 제재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와 식품, 의약품, 소비재 등 비제재 품목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중국, 중앙아시아를 활용한 우회적 경제 협력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교 장관 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고 대화 채널 상설화하며, 관광이나 유학 프로그램 확대, 지자체나 민간 차원의 상호 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 쪽으로 좌표를 이동하면서 한중관계도 경색되었다. 중국은 러우 전쟁에 직접 지원하지 않았지만 대러 경제 제재의 효과를 희석하고 러시아 경제의 하방

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을 용인하거나 일반 물품 중 군수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을 공급함으로써 후방에서 전쟁을 돕는다는 미국의 압박을 받아왔다. 러우 전쟁으로 중국에 대한 유럽의 경각심이 더 커졌고 유럽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다. 이제 러우 전쟁이 마무리되면 미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을 해제하고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중국 내수 경기 활성화와 한국인 관광객 유치로 인한 관광 수입 증대, 북러관계 강화에 대응하여 한중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내 중국의 외교적 균형 확보, 문화 교류를 통한 중국 젊은 층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양국 간 우호 증진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마지막 방한 후 2016년 주한 미군의 사드(THAAD) 배치,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한중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부족했다. 한한령 해제와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를 한중관계 개선의 시작점으로 삼아 양국 간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면 한중관계 개선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경색 및 경제 보복은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관계 회복기를 맞이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떠나 강대국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했을 때 일어날 파장, 국민이 감내해야 할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 위협이라고 여겼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한국에 대중 견제 역할을 더 압박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군사적으로 동참하거나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더 큰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한국에 경제적, 안보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현재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한국 경제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20%로 여전히 높다. (2024년 7월 기준 2004년과 비슷한 20% 전후) 또한, 한중관계 경색이 북중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색되면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더 큰 요구를 수용해야 할 수도 있다. 외교적 주체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우호적인 한중, 한러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더 거세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쉬운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경제적, 안보적, 지정학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을 때 닥칠 후폭풍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한복판에 서는 것과 같다. 한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는 중국을 더 자극하고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대만해협의 안정은 한국 경제에도 중요하지만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에 북한의 동시 도발이 빠지지 않고 거론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 성격의 군사협력 요구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포인트, 예컨대 LNG선 수주, 미 군함 수리 보수 협력,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등 여타 다른 협력으로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다른 지정학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외교적 결정을 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하는 레드라인을 지킬 때 한국도 중러로부터 동북아 평화를 위한 북핵 문제 해결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우호적인 한중, 한러관계 형성은 한국의 외교 공간을 넓히고 북한을 경계할 레버리지를 가지며 동북아 안보적 긴장 완화와 역내 평화를 위한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한중, 한러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미중러 삼각 구도 내에 있는 한국이 스스로

중국, 러시아를 우호적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로 돌려놓는 것으로서 대북 견제 또는 북핵 문제 협력의 기회도 축소됨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4차 산업 혁명과 AI 시대에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전기차, 로봇,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핵심인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첨단군사력의 유지의 핵심인 조선과 방위산업, 미래 생명과학 분야인 바이오까지 모든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까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대국은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향후 자국에 이익이 됨을 알고 있다. 한국이 4차 산업 혁명과 AI 시대에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동시에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두 개의 전쟁이 마무리되어 간다. 미중경쟁이라는 국제질서의 패러다임 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비우호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어느 한 편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으면서 외교적 좌표를 지혜롭게 조정하여 미중일러 강대국들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해야 한다. 한국은 그들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동반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러, 한러, 북미, 남북관계가 서로 시너지를 내며 발전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해빙기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저는 한국이 계속해서 한미동맹에 무게 중심을 두되 중국,러시아의 관계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인접해있으며 세 나라 모두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북한과 휴전상태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분쟁지역을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역, 대만해협, 남중국해, 한반도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힘이 부딪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마치 한태평양 조산대에서 지진이 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힘이 부딪히는 곳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지역 중에 미러의 대리전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해양을 제외하고 대륙 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은 한반도입니다.

안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압도적 군사력 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북한과 단절된 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 북중러 연대 가능성이 커지며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미일 협력에 한중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은 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반대로 북미대화가 이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안보적 긴장이 완화됩니다.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한반도 안보의 긴장 수위가 조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방식으로든 트럼프 정부가 북미대화를 시도한다면, 자체가 한반도 안보의 긴장 완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 또한, 안보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군비 확장, 군사력 증강 못지 않게 우호적 안보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질서의 가장 큰 프레임은 미중경쟁입니다. 2018년 이전까지의 30년이 이념과 체제에서 오는 갈등을 억제하면서 협력했던 시기라면 이제 갈등을 더 표면화하고 증폭되는 패러다임이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외적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바뀌고 선택지도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중간국이 어느 한쪽 편으로 과도하게 급격히 편향되면 다른 국가와는 비우호적인 관계를 넘어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고 안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의 편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 믿었지만 결국 전쟁으로 비화되어 최악의 안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미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 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한국은 늘 지정학적 상황을 인식하는 토대 위에서 안보 최우선의 외교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핵을 보유한 세 개의 국가를 이웃으로 두고 있는 한국이 우호적인 한중, 한러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은 북한을 견제할 레버리지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경색된 틈을 이용하여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UN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UN의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함으로써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북중러 삼각관계 안에서도 복잡한 셈법이 있기 때문에 당장 강한 연대를 형성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스텐스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흑백이나 선악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구도를 보면서 점진적인 좌표 이동을 통해 국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미중 경쟁에서 결국, 미국이 이길테니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주장은 그 과정에서 한국이 직면할 경제적, 안보적,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 항행의 자유 작전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적어도 지정학적 위험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한국에 지정학적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용 범위는 외교적으로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한 한령을 완화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사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했을 때 일어날 파장, 국민이 감내해야 할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 위협이라고 여겼습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군사적으로 동참하거나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더 큰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한국에 경제적, 안보적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한국 경제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또한, 한중관계 경색이 북중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색

되면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미국은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참여는 중국을 더 자극하고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대만해협의 안정은 한국의 경제에도 중요하지만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에 북한의 동시 도발이 빠지지 않고 거론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동적 태도로 쉬운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경제적, 안보적, 지정학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을 때 닥칠 후폭풍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힘 겨루기 한복판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 성격의 군사협력 요구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협력 포인트, 예컨대 LNG선 수주, 미 군함 수리 보수, 여타 다른 경제 협력으로 우회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다른 지정학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외교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호적 한중, 한러 관계 형성은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고 북한을 경계할 레버리지를 가지며 동북아의 안보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한미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한중, 한러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미중러 삼각 구도 내에 있는 한국이 스스로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돌려놓는 것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가 더욱 축소되고 대북 견제 또는 협력의 기회도 축소됨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중경쟁 시기에 스스로 미중의 힘겨루기 가운데 서서는 안 되며 한반도에 안보적 긴장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적 스텐스를 취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강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김영대 목사



강의	우리가 화해와 용서의 사람 ‘요셉의 마음’ 을 가질 때,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사	– 꿈마을엘림교회 담임목사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창 45:1~8, 15

금년은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이 되는 해이고, 그저께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도 동족상잔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친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에 납북되셨고, 고모님은 폭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이제나저제나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사셨던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저의 아버님 역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신청을 하시고는, 90세가 넘도록 통일부나 남북 이산가족협의회에서 편지가 오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부리나케 뜯어보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의 부끄러운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국제관계나 정치 외교적인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통일이 가능하기는 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포로 되어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의 날이 꿈같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적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믿는 것처럼, ‘평화통일’도 가능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미에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양국은 높은 안데스산맥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오랫동안 서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 칠레>

그러다가 1,904년에 작은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평화롭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아르헨티나의 멘도자(Mendoza)와 칠레의 산티아고(Santiago)를 잇는 높은 고갯길, 무려 해발 3,832m나 되는 우스파야타 산언덕, 양국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왼손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오른손을 뻗어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한 청동상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동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두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동상이 칠레에는 등을 돌리고 있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손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데스산맥 우스파야타 산언덕의 예수상>

그래서 칠레 국민들의 감정이 상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동상이 우리나라에 등을 돌리고 있도록 세운 거냐? 예수님은 아르헨티나만 축복하라는 거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러니 양국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동상인데, 오히려 그 동상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칠레인의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힐 만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뭐 우리가 좀 아량을 베풀지 뭐!” 하면서 감정이 가라앉은 것입니다.

신문 기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양국 사이에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동상의 모양이나 위치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동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때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없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못된 병에 걸려야 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해?”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해?” 이런 생각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이 복 되려면! 또한, 민족이 성숙하고 복된 민족이 되려면! 해석을 잘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평화통일학교’ 강의의 주인공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먼저, 요셉의 일생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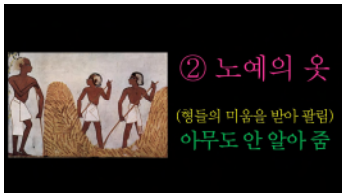
요셉은 평생 동안 5번의 옷을 갈아입은 사람!

→ ① 채색 옷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 - 시기의 대상.



▶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친엄마 말고도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세 명이나 있었고,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되었고, 이들은 다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향한 언사가 곱지 않았습니다.(창 37:4)

→ ② 노예, 종의 옷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림) - 아무도 편이 되어 주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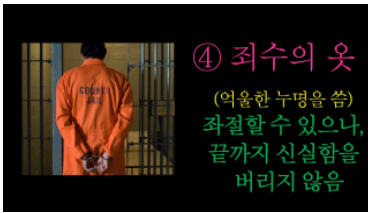
▶ 마른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노예상에게 팔려 가면서도, 얼마나 애타게 형들을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가 되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어가 다르니 말도 통하지 않고, 노예들도 서열이 있었을 터이니, 어린 요셉은 무척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 ③ 가정 총무의 옷 (신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인정받음) - 미혹의 기회도 됨.



▶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철없는 소년이였기에, 힘든 일을 해보지 않아서 노예 생활이 더 힘들었겠지만, 그는 늘 긍정적이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그를 신뢰하여 가정 총무의 일을 맡깁니다. 보디발 집의 모든 식솔들에게 사랑받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 ④ 죄수의 옷 (억울한 누명을 씌) - 좌절할 수 있으나, 끝까지 신실함을 버리지 않음



▶ 요셉을 사랑해서는 안 될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했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고자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엄청난 시련과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찾을 수 없습니다.

→ ⑤ 총리의 옷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해결책을 제시함)
그 결과 총리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게 됨. (창 41:41~42)



▶ 형들에게 팔린 지 22년 만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됨. <17세에 팔림(창 37:2) + 13년이 지난 30세에 총리가 됨(창 41:46) + 7년 풍년 + 흉년 2년이 지난 때(창 45:6)>

오늘 ‘**평화통일학교**’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 “북한은 ‘**적성국**’이면서, 동시에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족**’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 묵묵히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 화해와 용서의 사람 ‘**요셉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요셉의 마음을 가질 때, 남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여는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어떤 점을 배워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 음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넘겨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 처절한 시련의 날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셉의 눈에서는 순간 불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미움과 원한의 감정을 울음으로 정리하고 마음을 열어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형제들과 화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북한 민족 간에 진정한 화해를 위하여, 요셉이 가졌던 마음 세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형제의식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처지였습니다. 그들의 음모로 생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넘겨졌다가, 외국에 노예로 인신매매까지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고, 자기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그 형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형제로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 45:4 →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자들이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그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읽으신 4절에서 형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오세요. 잘 보십시오. 제가 당신들의 아우가 아닙니까? 제가 요셉이에요!” 저 같으면 도저히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그들을 여전히 ‘형님’이라고 부르며 내가 당신들의 ‘아우’가 아닙니까? 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형제의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런 ‘형제의식’이 바로 그 형제들과 더불어 화해를 가능케 했던 의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이러한 형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높은 불신의 벽과 서로 주고받았던 비난과 회색의 언어들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제들이어야 할 서로를 향해서 괴뢰, 빨갱이, 원수, 오랑캐... 이런 단어들을 거침없이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북쪽에서는 남쪽을 향해서 훨씬 더 심한 언어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극복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든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공산주의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는 그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5천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 문화전통과 한 언어를 갖고 살아온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남북한 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원수가 아니라 그들을 형제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란 사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북한의 80년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형제의식’입니다. 주님께서 남북한 모든 동포들에게 이 ‘형제의식’을 회복시켜 주시므로,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섭리의식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마음은! 그가 겪어왔던 상황, 그가 당했던 고난과 아픔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반대로! 요셉이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당했어!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이 원수를 꼭 갚고 말거야.” 만일 그랬다면! 요셉은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형들과 얼싸안고 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역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했지만, 아팠지만, 상처는 고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은! 형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개인의 삶과 역사에 대한 섭리적 안목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 45:5 →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

내셨나이다.”

7절도 읽겠습니다. 창 45:7 →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 5절과 7절에서 강조된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사실 억울한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보다 더 좋은 보복의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에게 주어진 칼과 힘을 가지고 멋지게 자기 인생을 짓밟았던 그 형들을 향해서 ‘보복의 칼’을 휘둘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셉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은 “▶ 걱정하지 마세요. ▶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 우리 민족의 양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모든 사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이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아픈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는가?” 하며, 그 초점을 상대방에게 계속 맞추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상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

날 때,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의 사건을 나에게 허용하셨다면! 나는 기꺼이 훈련받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커다란 축복과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롬 8:28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도’ ‘고통도’ ‘상처도’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열매 맺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는 ‘섭리 신앙’ 혹은 ‘섭리 의식’인 것입니다.

유달리 고난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마침내 미움을 극복하고 화해의 새 시대를 창출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경험은 우리 민족사에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하는 놀라운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크게 공헌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이 우리 모두 섭리 신앙, 섭리 의식을 가지고 북한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 섬김의식입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생각은 화해와 평화적 통일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화해와 통일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도움과 섬김은 누가 먼저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강한 자가, 성숙한 자가 먼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쁘게 국무총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간을 열어 자기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애굽

의 바로 왕도 이 소식을 듣고는, 그 형제들과 식구들 모두에게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에 내어주며, 데려와 같이 살도록 배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제의식과 섭리 의식을 가진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먼저 동독을 도왔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운 것입니다. 서독과 동독의 상황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주어도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얼어붙었던 동독도 차츰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빠른 통일로 이어졌습니다. 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서독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사심 없이 돕고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처럼 정부 차원에서 길이 꽉 막혀 있을 때는, 민간 차원에서라도 북녘 동포들을 돕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그런 길도 거의 막혔습니다.

이 땅에 찾아온 ‘탈북민들’을 좀 더 따뜻하게 품고 섬겨줘야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어느 날 마침내 미움과 원수 됨의 장벽을 헐고 진정한 화해와 통일의 마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만일 우리가 형제의식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 지나간 역사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 서로를 향한 진정한 섬김의 의식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민족의 참된 화해도, 평화적인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의 물꼬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갈 6:9 →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매 (평화통일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통일을 위한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통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됨을 원하시는 주님! 80년 전!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지만, 그날은 동시에 남북 분단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미움과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씻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로운 통일의 날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백성 모두에게 새로운 의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 됨의 의식을 주시고, ▶지나간 역사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그리고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초월해서 우리가 정말 북녘의 동포들을 돕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새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고통과 상처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선교와 인류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동방의 등불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EMO

MEMO

MEMO

MEMO

MEMO

